

# 성주지역 금석문의 존재 양상과 성격\*

정 우 락\*\*

- I. 금석문을 주목하는 이유
- II. 성주 금석문의 존재 양상
- III. 성주 금석문의 성격과 가치
- IV. 맺음말: 활용과 전망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주지역에 전하는 금석문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간적 범위는 2018년 4월 현재의 행정구역인 10개의 읍면(邑面)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1945년 이전의 인물이나 사건으로 한다. 금석문의 종류로는 신도비(神道碑), 묘도비(墓道碑), 효열비(孝烈碑), 유허비(遺墟碑), 선정비(善政碑), 사적비(事蹟碑), 암각자(巖刻字)나 암각시(巖刻詩) 등으로 하고 묘갈(墓碣)은 생략하였다.

성주의 금석문은 정치와 행정의 심장부인 성주읍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는데, 건립 시기는 대체로 20세기 이후의 것이 대종을 이룬다. 그리고 성주 금석문은 암각자가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지역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위업을 길이 전하거나 선조를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경우가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복원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많았다. 찬서자(撰書者) 역시 지역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이 다양한 형태의 금석문을 통해 발견되는 바,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성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기도 했다.

성주 금석문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소통론적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하겠는데, 산수와 인간이 등치(等値)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들의 자긍심을 적극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강한 우정을 느끼며 바위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사림(士林)의 정신을 빗돌에 새겨 성주의 지성사적 흐름을 드높이기도 했다. 특히 효열(孝烈)이나 불망(不忘)의 공덕에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는 측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주 문화사에 이들 여성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 문화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 주제어

성주지역, 금석문, 존재양상, 성격, 성주문화, 암각자, 자부심, 소통론, 지성사



## I. 금석문을 주목하는 이유

성주군은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단은 선남면 도흥리, 서단은 금수면 영천리, 남단은 수륜면 백운리, 북단은 초전면 소성리이다. 전체적인 지세는 높고 낮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남동부로 내려오면서 비교적 낮고 평평한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과 하천이 두루 발달하고, 구릉지대 역시 적절히 조성되어 있어, 지방의 재지적(在地的) 기반을 확보한 사림파의 성장에 매우 유리한 자연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성주의 문화는 이 같은 조건 하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sup>1)</sup>

성주의 서쪽에는 가야산(1433m)이 높게 서 있고, 굽어보는 곳에는 가천과 이천, 그리고 백천 등의 하천이 두루 발달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가야산에는 신라말에 최치원(崔致遠, 857-?)이 숨어들었기 때문에 유선(儒仙)의 산이 되었고, 성주를 관향으로 하는 이승인(李崇仁, 1347-1392)은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와 함께 삼은(三隱) 혹은 사은(四隱)으로 칭송받았으며 그의 사당은 가야산 기슭에 있다. 박가권(朴可權, ?-1426) 역시 고려가 멸망하자 이 산으로 들어가 절의를 지키며 청풍(淸風)을 드날린 인물이다.

성주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동강은 다른 지역과 활발한 교역을 이루면서 서울 문화가 가장 신속하게 파급될 수 있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16세기에 이르러 영남학파가 성립되면서 독특한 강안문화(江岸文化)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즉 영남 좌도의 퇴계학과와 우도의 남명학파가 좌우로 서로 회통하고, 기호학과와 영남학파가 상하로 소통하며 강안학적(江岸學的) 전통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상주와 선산 등 여타의 지역과 문화적 공조를 이루며 하나의

1) 정우락,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영남학』 2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2) 이에 대하여 趙鏡夏는 「성산지 서문」에서 “지금 우리 영남의 70주 역시 당나라의 영남처럼 재화와 보물을 실은 배들이 예로부터 바닷길을 오르내리며 교역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공동체를 이룩하였다.

성주에는 이씨, 김씨, 박씨, 정씨 순으로 다양한 성씨가 살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성주문화가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李)·배(裴)·여(呂)·백(白)·전(全)·박(朴)·탁(卓)씨 등 7종의 성주목 성씨, 윤(尹)·조(趙)·이(李)·홍(洪)·정(鄭) 등 5종의 가리속현 성씨, 도(都)·현(玄)·임(任) 등 3종의 팔거속현 성씨가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발간된 16세기 초반에서 『성산지』가 발간된 20세기 초반까지 성주의 성씨가 얼마나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던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가야산과 낙동강 사이에서 문화를 구축했던 성주 사람들, 이 때문에 이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길 수 있었다.

가야산은 영원히 우뚝하고	伽山永屹
가천은 길이 흐르리라	伽水長流
남으로 노루목[獐項]을 감싸고	南控獐項
서로는 용두(龍頭)를 안았네	西護龍頭
땅을 골라 덕(德)을 심었으니	擇地種德
남은 경사가 없어지지 않으리	餘慶不墜
조상은 베풀고 후손은 실행하니	祖施孫行
신령이 반드시 도우시리라	神必佑之 <sup>3)</sup>

가천면 창천리에 건립된 이승륜(李崇倫, ?-?) 유허비명(遺墟碑銘)의 일부이다. 이승륜은 청주 이씨로 임진왜란을 당하여 성주의 가천으로 숨어든 인물이다.<sup>4)</sup> 이후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세거하게 되는데, 이를 기려 선조를 위한 유허비를 세우게 되었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뚝한 가야산과

3) 李魯輒 찬, <贈戶曹參議行顯陵參奉進士泉谷清州李公諱崇倫遺墟碑>,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0-11번지.

4) 이승륜에 대한 제문으로는 張以俞의 <祭參奉清州李崇倫公墓文>(『知分軒集』 卷3)이 있다. 그는 낙동강을 특별히 사랑하여 <洛東江賦>(『知分軒集』 卷1)도 남겼다.



길이 흐르는 가천, 인근의 장항(獐項)과 용두(龍頭)를 제시하며 모두가 선조의 유허라 했다. 즉 이곳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며 그들의 문화가 성장해 왔음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주인들이 자연과 상호 작용을 하며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숙성시켜 갔던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성주문화사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금석문(金石文)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금석문은 말 그대로 쇠와 돌에 새긴 글이나 그림이다. 청동기의 명문(銘文)이나 선사시대 암각화(巖刻畵)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기원(祈願)을 이들 금석에 새겨 신과 인간 사이,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를 소통해 왔다. 금석문이 학문 자료로 활용되면서 필사되어 전해오던 문헌을 이것으로 교정하기도 하고, 금석문 그 자체로 당대의 문화를 읽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금석문은 원시시대부터 전해지는 문화의 중요한 맥을 짚어주는 중요한 자구(資具)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고대인들은 고인돌에 성혈(星穴)을 파놓고 하늘과 교통했다고 한다. 고인돌에 새겨져 있는 구멍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문자가 만들어진 후, 그 역할을 전서(篆書)가 담당했다. 이 때문에 신과 교통하기 위하여 전서를 썼고, 이를 통해 재앙을 물리치고자 했다. 즉 전서는 주술적 기능을 담당해 왔던 것이다. 허목(許穆, 1595-1682)은 삼척부사 재임시절인 1661년에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건립하는데, 여기에 특유의 글씨를 새겨 해일을 막고자 했던 것도 전서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가 작동하여 비석에는 두전(頭篆)을 새겨 신 혹은 죽은 이들과 교통하고자 했다. 비가 하나의 우주목(宇宙木)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인간이 두전을 통해 신과 교통하고자 했다면, 사람들 사이는 해서(楷書)나 행서(行書) 등 일상의 문자로 의사를 전달했다. 즉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이들 글로써 가능케 했던 것이다. 인간의 위업은 구비(口碑)를 통해 후인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돌이나 쇠에 기록을 남기고자 했다. “입소문이 이미 비석이 되었으니 돌을



깎아 세우는 것은 군더더기를 덧붙이는 것이나, 세상의 변화가 이처럼 덧없으니 만약 기록해 둔 것이 없으면 후세에 알려줄 것이 없을 것이다.”<sup>5)</sup>라고 하거나, “모든 비석은 입이 있나니, 영원히 후세에 사라지지 않으리.”<sup>6)</sup>라고 한 발언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주지역에 전하는 금석문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주의 지역 공간이 변화되었으니, 공간적 범위는 2018년 4월 현재 행정구역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지금도 금석문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로는 고대로부터 1945년 이전의 인물이나 사건으로 한다. 금석문의 종류로는 신도비, 묘도비, 효열비, 유허비, 선정비, 사적비, 암각자나 암각시 등으로 하고 묘갈은 생략한다. 묘갈의 경우 그 숫자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으며, 성주의 주요 인물들은 위의 금석문에 대체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성주의 금석문 조사는 성주문화원이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 『성주 금석문대관』 책자 발간(연구책임자 정우락)을 의뢰하며 이루어졌다. 이 조사의 목적은 “성주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전승하고, 사진촬영·타본·번역을 함으로써 장차 훼손 유실 등에 대비 복원자료로 활용하여, 우리고장의 금석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자는 것이었다. 유사한 조사가 2006년 성주군 발주의 ‘성주의 비석 조사(연구책임자 박영호)’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성주문화원 측에서는 기존의 조사를 보완하는 한편 암각자 등 여타의 자료로 확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7)</sup>

금석문 조사를 위해 우선 성주문화원에서 각 문중을 통해 1차 전수 조사를 하고, 연구팀이 이들 자료를 넘겨받아 답사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5) 宋在晟 찬, <誠菴潘南朴公孝行碑>, 성주군 대가면 홍산리 673번지, “口碑已成, 斷珉爲贅, 然滄桑之幻如是, 若無所記, 罔以詔後世.”

6) 찬자 미상, <牧使尹侯滋一清德善政碑>,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98-3번지, “有口皆碑, 永世不磷.”

7) 과업지시서의 ‘4. 조사 및 집필방법’에는 “기존 성주군에서 용역한 『성주의 비석 조사』(연구책임자 박영호, 2006)를 수정 및 보완한다.”를 명시해 두었다. 우리의 작업 역시 이러한 기존의 선행조사에 힘입은 바 크다.



이 과정에서 산삭(刪削)과 보완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목록을 만들었다. 산삭은 본 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묘갈이 중심이 되었고, 1945년 이후의 인물도 제외하였다. 보완은 관리들의 선정비, 시혜를 베푼 이들의 불당비, 표석이나 기념을 위한 암각자와 암각시 등으로 하였다. 이들 역시 신도비 등과 함께 성주의 문화사를 읽어내는 데 있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채진(李埰鎭)은 배인경(裴仁慶, 1239-1318)의 신도비에서 “영남의 성산(星山: 성주의 고호)은 평소 사대부의 보고(寶庫)라고 일컬어지는데, 성산으로 관향을 삼는 씨족들이 더욱 많다.”<sup>8)</sup>라고 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듯이 성주에서는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그야말로 ‘인재의 보물 창고’였다. 이 때문에 금석문의 수도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유희비나 암각자 등 다양한 종류의 금석문이 산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 금석문을 조사 연구하는 것은 성주 지역의 문화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권필(權鵬, 1569-1612)은 <충주석(忠州石)>에서 “이 말을 믿든 안 믿든 남들이 알든 모르든, 충주 산 바위를 날로 달로 깎아내어 남은 게 없네. 이 무딘 것 생겨날 때 입 없는 게 다행, 돌이 입 있다면 응당 할 말 있으리.”<sup>9)</sup>라고 한 바 있다. 신도비를 세워 허명만 숭상하는 권귀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성주의 금석문에도 자가문(自家門)의 과시를 위한 것이 있고, 이를 위해 두찬(杜撰)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금석문을 통해 우리는 성주인이 그들 삶의 근거지인 마을을 어떻게 형성해 왔으며, 이들이 돌에 새겨 후세에 특별히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이해를 위해 금석문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8) 李埰鎭 撰, <興安府院君裴公仁慶神道碑>,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91-1번지, “嶺之南星山, 素稱士大夫之冀北, 而以星爲氏尤多.”

9) 權鵬, 『石洲集』 卷2, <忠州石>, “此語信不信, 他人知不知, 遂令忠州山上石, 日銷月鏤今無遺. 天生頑物幸無口, 使石有口應有辭.”



본고는 금석문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존중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성주 금석문의 존재 양상을 파악한다. 이것을 지역별, 비종별, 문체별, 형태별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주 금석문의 성격과 가치를 따질 것이다. 이로써 성주 사람들이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후 성주의 금석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시하기로 한다. 금석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주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금석문을 통해 우리는 문헌과는 또 다른 연구 텍스트를 새롭게 발견하는 의미도 있다.

## II. 성주 금석문의 존재 양상

성주의 금석문 이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우선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기의 금석문이 어떤 공간에 위치하며, 그 금석문은 어떤 기능을 위해 건립되었는가 하는 데서, 지역별, 시기별, 기능별 금석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비의 재질이 석속인가, 아니면 금속인가에 따라 재질별로 분류될 수 있고, 비석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으며, 지은 사람 및 쓴 사람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여기서 다시 금석문은 재질별, 형태별, 찬서자별(撰書者別)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방법에 의거하여 성주 금석문의 존재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역별 분류이다. 성주는 1개의 읍과 9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이 그것이다. 성주읍에 관아가 존재하였으므로, 성주의 정치와 문화는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달했다. 성산동 고인돌군과 성산고분군(사적 86)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로부터 이곳은 성주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사람과의 근원이 되었던 절의파 박가권(朴可權)이 가야산에 은거하면서 사람



파의 원천이 되었고, 정구(鄭述, 1543-1620)와 김우옹(金宇顙, 1540-1603)이 성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양강(兩岡)의 고을로 변화하였다. 한말에는 성산 이씨 일족이 한개[大浦]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성주를 만들어 갔다. 이에 따른 금석문이 다량 생산되는데, 성주 지도를 참고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1] 성주군 읍면단위 지도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주 금석문은 성주읍(47), 벽진면(46), 용암면(45), 대가면(41), 가천면(40), 수륜면(39), 금수면(37), 초전면(36), 월항면(31), 선남면(30) 순이다. 금석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주읍과 벽진면은 성주의 중핵이자 고토이다. 이러한 사정이 이들 비의 규모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는 관리들의 선정비와 함께 신라말에서 고려초의 인물인 이충언(李愬言, 858-938)과 이능일(李能一, ?-?)의 유적[허]비<sup>10)</sup> 등 성산(星山), 성주(星州), 경산(京山)과 같이 성주를 기반으로 한 가문의 시조 혹은 중시조의 기념비가 존재한다.<sup>11)</sup> 성주의 문화적 정치적 중심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10) 이충언의 <高麗三重大匡開國元勳碧珍將軍李愬言事蹟碑>는 벽진면 수륜리 765-1번지에 있으며, 이능일의 <星山伯李公能一遺墟碑>는 성주읍 경산리 329번지에 있다.  
11) 성주읍 경산리 94-1번지에는 배인경의 <興安府院君裴公仁慶神道碑>, 성주읍 대항리 1810-1번지에는 배극림의 <貞節公書錦堂裴先生神道碑銘>, 벽진면 자산리 산 96번지에는 이장경의 <隴西郡公李先生神道碑>, 성주읍 경산리 107-2번지에는 이장경의 <隴西郡公李先生遺墟碑>가 있다.



둘째, 시기별 분류이다. 성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금석문은 성주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려시대 제작의 석불좌상에 새겨진 명문이다. 이 명문은 967년(광종 18)의 것으로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글자의 크기는 약 4cm이고 6줄 새겨져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가 어렵다. 다만 대화상(大和尚)이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1462년(세조 8)에 세워진 <세조대왕태봉가봉비(世祖大王胎封加封碑)<sup>12)</sup>이지만 비문이 마멸되어 현재 판독이 불가능하다.<sup>13)</sup> 이렇게 보면, 성주에서 임진왜란 전의 것으로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은 1547년(명종 2)에 건립된 남궁숙(南宮淑, 1491-1553)의 선정비<sup>14)</sup>와 1500년대 후반에 건립된 권희맹(權希孟, 1475-1525)의 신도비<sup>15)</sup>이다. 이 가운데 남궁숙의 선정비를 들어보기로 한다.

공의 이름은 숙(淑)이고 자는 숙부(淑夫)이다. 을사년(1545)에 성주목사로 부임하였다. 마을을 가다듬고 성의를 다하여 오직 고을을 새롭게 하였으며 묵은 폐단을 통렬히 개혁하였다. 요역을 줄이고 세금을 가볍게 하였으며 오로지 백성을 기르는 데에 전념하였다. 쓸데없는 비용을 싹 잘라내었고 자신은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소송을 들으면 명쾌하게 결단하니 그와 비교할 자가 드물었다. 병오년(1546) 겨울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가니, 떠난 후에 그리워하는 것은 참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에 비석에 새겨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명문을 붙인다.

화평하고 단아한 공이여  
우리 고을에 사랑을 남기셨네  
돌을 깎아 세우니

愷悌我公  
遺愛吾鄉  
刻石而立

12)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번지 소재.

13) 이 비에 대한 비문은 약간의 출입이 있기는 하나 『世祖實錄』과 崔恒의 『太虛亭集』에 수록되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

14)李文樞 찬, <南宮公善政碑>, 성주읍 예산리 198-1번지.

15) 洪暹 찬, <有明朝鮮國通政大夫江原道觀察使權公神道碑銘并序>,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산41번지.



영원히 잊지 못하겠네

永世難忘

가정(嘉靖) 26년 정미년(1547) 정월 일에 세우다<sup>16)</sup>

이 비는 1545년(인종 1)에 성주목사로 부임하여 1547년(명종 2)에 사직한 남궁숙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인데, 쓴 사람은 이문건(李文楫, 1494-1567)이다. 이문건은 1546년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尹元衡) 등에 의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죽친 이휘(李輝)가 화를 입었고, 이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되었다가 이곳에서 죽었다. 위의 선정비는 그가 성주에서 유배생활 할 당시에 세운 것인데,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성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를 이어 앞서 언급한 권희맹의 신도비와 1633년(인조 11)에 세운 정구(鄭逵, 1542-1620)의 신도비,<sup>17)</sup> 1653년(효종 4)에 새긴 봉곡서당(鳳谷書堂) 암각자 등이 있다. 그러나 성주 금석문은 1900년에 세운 이사룡(李士龍, 1612-1640) 신도비<sup>18)</sup>를 필두로 하여 20세기 이후에 건립된 것이 74% 이상이나 된다.

셋째, 기능별 분류이다. 금석문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신도비, 묘도비, 효열비, 유허비, 선정비, 불망비, 사적비, 암각시, 암각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신도비가 정2품 이상의 관원에 한하여 무덤 앞이나 무덤으로 가는 길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는 것이듯이, 이들 비는 모두 저마다의 기능이 있다.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주 금석문의 경우 수적으로 암각자(61), 유허비(54), 효열비(42), 선정비(40), 신도비(35), 사적비(30) 순이다. 암각자는 그 기능면에서 어느 하나로 특징지을 수 없으나, 사람의 이름을 돌에 새겨 후

16)李文楫 찬, <南宮公 善政碑>,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98-3번지, “公諱淑, 字淑夫, 歲己巳, 來牧于州. 勵精惟新, 痛革舊弊, 輕徭薄賦, 專意字民, 絕去冗費, 自奉儉約, 聽訟明斷, 鮮有倫比. 丙午冬, 以疾歸, 去後之思, 實由中出, 乃書于石, 以著厥美, 系以銘曰, 愷悌我公, 遺愛吾鄉. 刻石而立, 永世難忘. 嘉靖廿六年丁未正月日 立.”

17)申欽 찬,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諡文穆公寒岡鄭先生 神道碑銘並序>,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6-1번지.

18)李種杞 찬, <大明忠臣朝鮮義士贈通訓大夫星州牧使星山李公神道碑銘>, 용암면 대봉리 602-3번지.



세에 남기고자 한 것을 감안하면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성주의 암각자는 가천면 신계리의 관동암(冠童巖)<sup>19)</sup>이나 벽진면 운정리의 처사암(處士巖)<sup>20)</sup>처럼 자연석 바위에 새긴 것이 가장 많으며, 백곡한강선생 태지(栢谷寒岡先生胎地)<sup>21)</sup>와 같이 소박한 입비의 형식을 취한 것도 다수 있다. 혹은 이 둘의 형식을 복합한 것으로 석치중(石致重, 1774-1851) 유허비<sup>22)</sup>처럼 자연석을 약간 다듬어 입비의 형태를 취한 것도 있고, 배희구(裴羲九) 불망비<sup>23)</sup>처럼 자연석을 비석처럼 깎고 거기에 각자한 것도 있다. 이를 통해 성주인들은 성산배씨유허(星山裴氏遺墟)<sup>24)</sup>나 나주정씨유허(羅州丁氏遺墟)<sup>25)</sup>처럼 일문의 구역을 표시하기도 하고, 용(龍)이나 귀(龜)<sup>26)</sup>처럼 신령



[사진1] 송정 암각자

한 동물을 글로 새기기도 하고, 노암(老巖)<sup>27)</sup>이나 오암(鰲巖)<sup>28)</sup>처럼 바위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 이로써 지역 문화의 구심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성주의 암각자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으로는 암각화를 함께 새긴 것이다. 가천면 동원리 945번지 소재의 송정(松亭) 암각자가 바로

19)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70번지.

20)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680번지.

21)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139번지.

22) 宋鴻訥 찬, <洛隱處士石公遺墟碑>,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749-4번지.

23) 찬자 미상, <學生裴公羲九不忘碑>,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 328번지.

24)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 945번지.

25) 성주군 용암면 죽전리 산 7-1번지.

26)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70번지.

27)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50번지.

28)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269-8번지.



그것이다. 이 암각자는 성산 이씨 경모재(敬慕齋) 들머리의 자연석에 새겨져 있다. 암각자 위에 ‘이기동(李基東)’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송정은 이 사람의 아호로 볼 수 있으나 새긴 연도는 알 수 없다. ‘松亭’ 각자는 얇고 넓게 천각(淺刻) 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삼단의 그림을 새겼다. 위쪽에는 좌우로 두 개의 동심원 문양과 그 왼쪽 위에는 고사리 문양이 있고, 아래쪽에는 단순화된 연당굴 문양을 새겼다. 만석(萬石)<sup>29)</sup>이나 족천(足踐)<sup>30)</sup>처럼 디딤돌에 새겨 마루를 오르내리며 마음을 다졌던 것도 있어 특기해둘 만하다.

넷째, 재질별 분류이다. 금석문은 용어 자체가 보여주듯이 쇠와 돌에 새긴 글이나 그림을 의미한다. 그러나 쇠는 녹이 슬어 글자가 쉽게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금석문으로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암이나 대리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의 경우 두 기의 철비가 있어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윤자일(尹滋一, 1794-?)의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sup>31)</sup>와 가천면 신계리에 있는 이원조(李源祚, 1792-1872)의 흥학창선비(興學倡善碑)<sup>32)</sup>가 그것이다. 이 두 비는 형태면에서 동질성을 갖추고 있다. 모두 비신(碑身)과 이수(螭首)만으로 되어 있고, 이수의 뒷부분은 태극무늬가 주조되어 있다.

글을 어떤 돌에 새기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적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서는 풍화가 쉽게 되지 않는 오석(烏石)과 같이 석질이 단단해야 한다. 이러한 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벽진면 봉계리에 위치한 이동숙(李東淑) 처의 표효비(表孝碑)에서 “돈을 각출하고 이자를 불러서 일이 이루어지자 돌을 다듬어 행적을 기록하고자 하여 나에게 명문을 부탁하였다.”<sup>33)</sup>라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운 비라 할지라도 글자가 마모되어 다시 세워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초전면 문덕리의 송구(宋構)

29)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87번지. 극와고택 안채 뜰 디딤돌에 새겨져 있다.

30)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264번지. 적산 마을 첨모재의 디딤돌에 새겨져 있다.

31) 찬자 미상, <牧使尹侯滋一淸德善政碑>,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98-3번지.

32) 儒楔諸生 찬, <故判書凝窩李先生興學倡善碑>,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70번지.

33) 都殷煥 찬, <李東淑妻金氏表孝碑>,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756번지, “釀金滋殖, 物成, 欲伐石記蹟, 請銘於余.”



묘도비에서 “세월이 이미 오래되고 비바람에 씻겨 돌이 갈라지고 글자가 없어졌다. 이에 효성스런 자손들이 한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깊어 돌을 다듬어 다시 세우려고 하였다.”<sup>34)</sup>라고 하였던 것이다.

좋은 돌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천우신조(天佑神助)로 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했다. 벽진면 자산리의 이순(李舜) 유지비(遺址碑)가 그것이다. 이규형(李圭衡)은 여기서 “작년 세찬 비에 언덕이 무너져 큰 돌이 드러났는데 가공하지 않았는데도 머리는 홀처럼 둥글고 받침은 모가 난 것이 천연적으로 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모두들 ‘귀신이 깎고 신령이 감추어서 공을 위해 쓰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sup>35)</sup>라고 하면서 감탄해 마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입비에서 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과 이 돌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다.

다섯째, 형태별 분류이다. 금석문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의 문화가 다르고, 새겨서 후세에 남길 만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써 다양한 격식이 생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위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비재(碑材)가 고려되기도 한다. 성주의 금석문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대별해 보면, 입비의 형태로 된 경우와 암각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입비는 비석으로 쓸 만한 돌을 구한 뒤 입전(立傳) 대상의 신분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돌을 가공해서 세우는 것이고, 암각은 글을 새길 만한 자연석을 찾아 거기에 자신의 세계관이나 후세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새기는 것이다.

입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부터 보자. 이는 다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좌대+비신+비개석’으로 되어 있는 것과, ‘좌대+비신’으로 되어 있는

34) 李國源 찬, <高麗嘉靖大夫京畿監司治城宋公墓道碑>,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산53-15번지, “歲月已久, 風雨漂灑, 石泐字缺, 慈孫之齋恨既深, 琢石將復改堅之.”

35) 李圭衡 찬, <通政大夫龍驤衛副護軍老巖李公遺址碑>,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산154번지, “去歲, 急雨岸崩, 有巨石出, 不加斲磨而圭首方趺, 天然具碑形, 兪曰無乃鬼剗神秘.”



것이 그것이다. 전자의 좌대는 귀부(龜趺), 방부(方趺), 농대(龍臺)로 대별되고, 비개석은 이수(螭首), 가첨석(加檐石), 관석(冠石)으로 대별된다. 입비의 전형은 신도비에서 찾을 수 있다. 1633년(인조 11)에 건립된 정구(鄭述)의 신도비(神道碑)의 경우, 용의 아들로 알려진 비희(鼉鼉) 좌대와 비문을 새긴 비신, 그리고 이수(螭首)로 구성되어 있어 완벽한 형태를 이룬다. ‘좌대+비신’ 형태는 선정비와 불망비가 전형이다. 비신은 끝이 둥근 호패 모양의 원수(圓首)와 끝에 각이 진 홀 모양의圭首(圭首)가 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 서 신도비의 형태를 띠는 것도 다수 발견된다.

암각의 형태는 자연석에 그대로 새기는 경우와 자연석을 비처럼 다듬어 새기는 경우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는 글씨를 새길 만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다듬어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천면 신계리의 ‘분합폭(分合瀑)’과 용사리의 ‘선조은수공절운여유서(先祖隱叟公絕韻與遺書)’, 수륜면 신정리의 ‘완연대(觀淵臺)’와 수성리의 ‘한강대(寒岡臺)’, 금수면 봉두리의 ‘삼로동(三老洞)’과 무학리의 ‘배계은조대(裴溪隱釣臺)’ 등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자연석에 보통 비 크기만큼 깎아내고 거기에 사적을 새기는 경우이다. 가천면 동원리의 ‘배희구(裴羲九) 불망비’가 대표적이다. 이는 암각비라 해야 할 터인데, 형태적인 측면에서 독특하다.

여섯째, 찬서자별 분류이다. 비문의 찬자(撰者)가 누구이고 서자(書字)가 누구이며, 또한 두전(頭篆)은 누가 썼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입전인 물의 위상이 이들로부터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문중의 글 잘 짓고 글씨 잘 쓰는 이가 이것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당대의 저명한 학자나 문장가에게 청하여 비문을 짓고, 명필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서예가의 글씨를 받아 화려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성주 금석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경향의 이러한 현상은 한국 금석문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주지역에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찬자(撰者)의 경우 다작 순으로 들어보면, 정종호(鄭宗鎬)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은환(都殷煥)이 4건, 이현일(李玄逸)·민경호(閔京鎬)·이재현(李



載現)·홍직필(洪直弼)이 각각 3건이다. 정중호는 정구의 14대손으로 성주에 살았고, 도은환도 도균(都勻)의 13대손으로 성주에 살면서 명망이 높았다. 그 외는 외부인들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다. 이밖에 한문사대가의 한 사람인 신흠(申欽)은 정구의 신도비를 지었고, 이학의 대가 장현광(張顯光)은 이능(李能)의 묘갈명을 지었으며, 조선 말기의 왕족 이강(李珣, 1877-1955)은 전룡(全龍)의 신도비명을 지었고, 일제강점기 ‘열사상’을 주창했던 정인보(鄭寅普, 1893-1950)는 장기석(張基奭)의 부인 함양 박씨의 기열비문(紀烈碑文)을 지었다.

서자(書者)의 경우도 다작 순으로 들어보면, 이상건(李相虔)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여상한(呂相韓)이 8건, 송홍래(宋鴻來)가 6건, 이채진(李琛鎭)이 4건이다. 이들은 모두 성주나 인근에 살았던 사람으로 지역에서 명필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밖에도 성주에 살면서 시문으로 문명을 날렸던 권응인(權應仁)은 권희맹(權希孟)의 신도비를, 전서의 대가이면서 남인의 영수로서 조선후기의 정계와 사상계를 이끌었던 허목(許穆)은 봉비암(鳳飛巖) 암각자를,<sup>36)</sup> 지역 출신으로 공조판서를 지냈던 명사 이원조(李源祚)는 이능(李能)의 묘갈명을,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인 김구(金九)는 장기석(張基奭)을 기리기 위한 <해동청풍비(海東淸風碑)> 비음기를 썼다. 이렇게 하여 성주의 금석문은 더욱 품격을 높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주의 금석문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역별, 시기별, 기능별, 재질별, 형태별, 찬서자별로 나눈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성주 금석문의 분포 실태와 함께 성주의 금석문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성주의 금석문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역인 성주읍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는데, 건립 시기는 대체로 20세기 이후의 것이 대종을 이룬다. 그리고 성주 금석문은 암각자가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지역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업을 길이 전하거나 조선(祖先)을 추모

36) 이밖에도 김우옹의 신도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0호, 대가면 옥화리)는 허목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며, 배상룡의 묘표(<朝鮮國處士藤庵裴公之墓>, 금수면 후평리) 역시 허목이 찬하고 두전도 썼다.



하기 위하여 입비하였으며, 찬서자 역시 지역 인사들이 많다. 이러한 사실이 다양한 형태의 금석문을 통해 발현되는 바, 우리는 여기서 성주 문화사의 성격과 가치를 간파하게 된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 Ⅲ. 성주 금석문의 성격과 가치

금석문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인문의 성장과 문명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석벽에 그림의 형태로 새긴 선사시대의 금석문이 몇 점 있기는 하지만, 비갈(碑碣)의 형태가 대중을 이룬다. 성주 지역의 경우 선사시대나 고대의 암각화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967년(광종 18) 고려시대의 석불좌상 명문이 최초이다. 남궁숙 선정비 등 조선전기의 금석문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 조선후기 내지 말기의 자료이고, 가장 많은 것은 20세기 이후의 것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성주 금석문의 성격과 가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주 지역민들이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성주 금석문의 성격과 가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입전 인물을 성주 산하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은 『경산지(京山志)』 서문에서 가야산 동쪽에 고을을 이루고 있는 성주의 산하에 대하여,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형세를 이루고 이천(伊川)과 낙동강이 떠처럼 두르고 있어, 산천의 우뚝한 정기가 모여 인물을 낳고 국가는 이에 의지하여 번영할 수 있었다.”<sup>37)</sup>라고 했다. 그는 여기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산들이 성주의 형세를 이루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이 떠처럼 두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산천의 정기가

37) 李元禎, 『京山志』〈京山志序〉, “控引岡巒之體勢, 縈廻伊洛之襟帶, 人鍾亨毓之氣, 邦賴榮懷之慶.”



모여 수많은 인물을 낳았는데, 이 인물을 중심으로 국가가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대한 인물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발언이다.

성주 지역민들은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지녔다. 선남면 도흥리의 <경주최씨세덕비(慶州崔氏世德碑)>에서 “성주 20리의 선남은 낙동강이 감싸고 흐르며 왕산(王山)이 둘러싸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우뚝하면서도 깊고 우뚝하게 돌아 올라와 마치 닭이 알을 품고 날개로 덮은 듯한 곳이 내동(內洞)이니, 우리 경주 최씨(慶州崔氏)가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sup>38)</sup>라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특정 인물에 집중되기도 했다. 월항면 대산리에 소재한 이석문(李碩文)의 신도비에서 “성산이 높다높은데, 한 줄기가 남으로 가지를 뻗었네. 백천(白川)이 동쪽으로 내달려, 영기가 한 골짜기에 쌓였네, 사립문을 북쪽으로 내고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이 그 누구인가?<sup>39)</sup>”라고 하거나, 수륜면 수륜리 소재의 <덕천서원유허단비>에서, “가야산은 우뚝하고 낙동강은 흐르니, 저 산과 물처럼 영원하리라.”<sup>40)</sup>라고 한 등이 모두 그것이다. 표현상의 차이가 다소 발견되지만 모두 성주 산하와 인물의 위업이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는 관계임을 보였다.

둘째, 지역 사람들의 입동 및 세거 과정과 숭조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된다. 성주, 성산, 벽진처럼 성주를 관향으로 하여 세거하는 성씨가 있기도 하지만, 특별한 계기로 유입된 성씨도 있었다. 예컨대, 선남면 소학리에 있는 황헌(黃堧) 찬의 노인(魯認) 신도비에서는, 노인이 순천에서 태어났지만 임란

38) 崔榮煥 찬, <羅麗鮮參朝崔氏之銘>,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1612번지, “州之東二十里船南, 洛江抱而流, 王山環而擁, 其中窈然而深, 突然而起, 如鷄抱卵而覆翼者, 曰內洞, 此吾慶州氏之世居也.”

39) 郭鍾錫 찬,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訓練院主簿遯齋李公神道碑銘并序>,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299, “星山矗矗, 一柱南條. 白川東趨, 靈蓄之嶺. 有北其扉, 伊誰燕超.”

40) 金梔 찬, <德泉書院遺墟壇碑>,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198번지, “山峙水流, 與之永久.”



을 거치면서 왜의 부혈(浮穴)과 중국의 곡부(曲阜)와 북경(北京)을 지나 성주 선남으로 들어와 살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성주군 대가면 소재 정종호(鄭宗鎬) 찬의 하영호(河永浩) 유지비에서는 6대조 하득천(河得千)이 광해조의 난정을 맞아 성주로 낙남(落南)해 세거하게 된 사정을 전했다. 이밖에도 임란 등의 전쟁이나 단종복위 등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성주로 내려와 세거하게 된 경우도 있다.

금석문에는 마을의 성립과정을 기술한 것도 있지만, 세덕·세계비를 세우거나 모선·추모·유허비 등을 세워 조선(祖先)을 추모하기도 한다. 홍우범(洪宇範)이 이원호(李源祐)에게 남양홍씨의 세계비문을 의뢰하면서 이 같은 마음을 보였다. “제가 돌을 쪼아 계보를 새겨 조상님들의 묘소 곁에 세워서,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할 근심에 대비하고 한편으로는 조상을 생각하는 깊은 감회를 붙이고자 합니다.”<sup>41)</sup>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사정의 어려움은 가천면 화죽리의 이거인(李居仁) 모선비, 용암면 용정리의 김언충(金彦忠)·김응일(金應鎰)·김응박(金應搏) 삼부자의 추원단비 등 허다한 비갈이나 장구지소(杖屨之所), 조대(釣臺), 영귀대(詠歸臺) 등의 암각자의 형태에서 두루 나타난다. 현존하는 성주의 금석문 가운데 이러한 경향을 지닌 경우가 가장 많다.

셋째, 성주 지성사의 흐름을 지역 내적 장소성과 관련하여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금석문을 통한 성주 지성사는 고려 원종조에 문망(文望)이 높았던 배인경(裴仁慶, 1239-1318)부터 나타난다. 그는 『서경』, 『예기』, 『논어』 등에 능통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up>42)</sup> 이후 배극렴(裴克廉, 1325-1392)은 조선의 개국을 도왔고,<sup>43)</sup> 이숭인과 박가권은 절의를 지켰다.<sup>44)</sup> 성주의 지성사는 이숭인과 박가권의 길을 선택하며 주로 사림의

41) 李源祐 찬, <南陽洪氏世系碑>,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산89번지, “吾欲琢石鐫譜, 立於瀧阡之側, 一以備不虞, 一以寓曠感.”

42) 그의 신도비는 성주읍 경산리에 세워져 있다. 배인경 신도비는 1970년에 유허비로 세웠으나 근년에 신도비로 교체하였다.

43) 李明翔 찬, <貞節公畫錦堂裴先生神道碑銘>, 성주군 성주읍 대항리 1810-1번지.

44) 金福漢 찬, <文忠公陶隱李先生神道碑銘>(성주군 수륜면 신평리 158-1번지), 宋秉璿 찬, <高麗開城判尹朴先生遺墟碑>(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872-1번지) 참조.



길을 걸었다. 이로써 김맹성(金孟性), 이철배(李鐵培), 이승언(李承彦), 이철균(李鐵均) 등과 같이 영남 사람의 종장 김종직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다수 배출될 수 있던 것이다. 그리고 김굉필(金宏弼)의 처외가가 가천이었기 때문에 김굉필이 자주 성주에 들렀고, 이장길(李長吉), 도형(都衡), 도균(都勻), 박문유(朴文儒) 등의 제자를 둘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도형(1480-1547)의 신도비는 월항면 보암리에 있고, 도균(1483-1549)의 신도비는 벽진면 운정리에 있다.

성주의 지성사는 김굉필의 외증손 정구(鄭逵, 1534-1620)의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그가 김우옹(金宇顥, 1540-1603)과 함께 양강으로 불리면서 퇴계학과 남명학을 수용해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정구의 신도비는 수륜면 신정리, 김우옹의 신도비는 대가면 옥화리에 있고, 이들과 도의지교를 맺었던 이순(李淳, 1530-1606)의 묘도비는 선남면 도흥리에, 이승(李承, 1552-1596)의 유허비는 수륜면 신평리에, 배덕문(裴德文, 1525-1603)의 신도비는 대가면 도남리에 있다. 여기서 나아가 정구의 제자 여찬(呂燦, 1579-1646)의 묘도비는 선남면 도흥리, 이정현(李廷賢, 1587-1612)의 유허비는 선남면 성원리, 최항경(崔恒慶, 1560-1638)의 유허비는 수륜면 남은리, 이중형(李重亨, 1595-1643)의 조대(釣臺)는 수륜면 보월리, 배상룡(裴相龍, 1574-1655)의 묘표는 금수면 후평리, 도세옹(都世雍, 1569-1626)의 묘도비는 벽진면 운정리, 장봉한(張鳳翰, 1566-1644)의 충의기적비는 벽진면 봉계리, 송세빈(宋世彬, 1612-1677)의 사적비는 초전면 문덕리에 있다. 이들의 학문적 역량은 한말 이진상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상과 맞물리며 성장하게 된다.

넷째, 성주의 금석문은 낙동강 연안학인 강안학적 특성과 이 지역의 정치적 입장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성주는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그 왼쪽과 오른쪽을 아우르면서도, 기호학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른바 강안학(江岸學)적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관권에 비교적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다. 벽진장군 이충언(李忠言, 858-938)처럼 지역의 치안에 힘쓰는 한편 왕건을 도와 큰 공을 세우기도 한다. 성주에서는 그의 이러한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다양한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가천면 독용산성 안에 소재한 이충언 대첩비(大捷碑)를 비롯해서, 벽진면 수촌리의 유허비와 표갈비(表碣碑), 그리고 사적비 등이 대체로 그것이다.

성주읍 예산리에는 성산기공비(星山紀功碑)가 있어 주목된다. 1728년(영조 4)에 이인좌가 난을 일으킨다. 당시 성주 지역에서는 목사 이보혁(李普赫, 1684-1762, 1727-1729년 재임)이 재임하고 있었던 바, 그는 지금의 수륜면 신파리 양정에 군사를 집결시키고, 이들과 합천으로 쳐들어가면서 거창의 적로를 차단했다. 이보혁은 북쪽으로 가는 길도 봉쇄하여 커다란 공을 세웠다. 이 비는 그의 이러한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인데, 노론과 성주 남인의 입장을 다수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성주읍 경산리에는 노론의 영수 김창집(金昌集)의 수명유허비(受命遺墟碑)가 있어 후인들은 그가 성주로 귀양와서 죽은 사실을 기념하였다.<sup>45)</sup> 이처럼 성주는 관권에 대한 협조와 함께 정치적으로 노론세력을 수용하는 회통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성주지역의 지식인들은 호학정신(好學精神)에 입각하여 학문을 특별히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성주의 지식인들은 배인경, 이승인, 김우용, 정구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 지역에 호학정신이 흐르고 있었으므로 가천면 신계리에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흥학창선비(興學倡善碑)가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계의 생도들이 이 비를 세우면서 “학문은 천리와 인사를 꿰뚫었고, 업적은 가문과 나라에 드러났네. 만년에 쉬지 않고 공부하며, 산[仁]과 물[智]에 즐거움 부쳤네.”<sup>46)</sup>라고 한

45) 서자 미상, <議政府領議政忠獻金公昌集受命遺墟碑>,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31번지. 이 유허비는 김창집이 성주로 유배 와 사약을 받고 죽은 사실을 기리기 위해 1750년 읍성의 동문 밖에 세웠으나 1911년 대구로 통하는 길을 내면서 남문 밖으로 옮겼다. 이후 6.25전쟁 때 폭격으로 파손되어 문도의 후손들이 비석을 수습하여 경산 3리 성황당으로 옮겨 세웠다. 그 후 2000년 경 다시 파손되어 조각들을 모아 2003년 여름에 현 위치로 옮기고 새 비석을 세운 뒤 비각[忠獻閣]을 세웠다.

46) 儒楔諸生, <故判書凝窩李先生興學倡善碑>,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70번지, “學貫天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목사 홍병희(洪秉禧, 1811-1886)는 향교를 크게 수리하였는데, 이에 군민들은 <목사홍후병희위도흥학비(牧使洪侯秉禧衛道興學碑)><sup>47)</sup>를 세워 그의 호학정신을 기렸다.

성주의 호학정신은 거의 모든 비에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학정신은 산간벽지에서도 발휘되었다. 금수면 무학리의 강학대(講學臺)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즉 강사 전종권(全鍾權)을 중심으로 박정모(朴正模) 등 33명의 강생(講生) 명단이 암각되어 있기 때문이다.<sup>48)</sup> 전종권은 전룡(全龍)의 13대손으로 지역에서 강단을 열었는데,<sup>49)</sup>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한 집안 자제들을 중심으로 생도를 모아 무료로 강석을 열었던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강생들은 평평한 바위벽을 찾아 강장과 함께 강생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이는 성주의 호학정신이 산간예까지 두루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섯째, 민족 시련기를 맞아 절의를 기반으로 한 실천 지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성주의 절의정신은 우선 이승인(李崇仁, 1347-1392)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조선 개국 후 정도전에 의해 유배지에서 장살(杖殺)된 인물이다. 그의 신도비는 수륜면 신평리에 있다.<sup>50)</sup> 그리고 고려말 개성판윤(開城判尹)을 지내다가 조선 태조가 일어나자 가야산으로 숨어들어 절의를 지켰던 박가권(朴可權, ?-1426)은 길재(吉再)와 전주어졌다. 그를 기리기 위한 유허비와<sup>51)</sup> 청풍비(淸風碑)<sup>52)</sup>가 수륜면 수륜리에 건립되어

人, 業著家邦. 晚節藏修, 寓樂仁智.”

47) 찬자 미상. <牧使洪侯秉禧衛道興學碑>, 성주읍 예산리 198-3번지.

48) 강학대 암각자는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309번지에 있고, 33명의 강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朴正模, 全聖萬, 全鍾玉, 金義錫, 全鍾斗, 成熙三, 全在洙, 全鍾泰, 蔣仁植, 全鍾萬, 金鍾海, 朴道俊, 玄桂守, 全鍾出, 李鳳祚, 李龍鶴, 都又煥, 全鍾生, 全鍾鶴, 蔣均植, 金三錫, 河在龜, 全鍾詳, 全燦坤, 金甲生, 金麗生, 全燦九, 全鍾一, 金龍煥, 洪正雲, 崔永淑, 朴炳煥, 全鍾列.

49) 그가 쓴 <孝婦金海金氏碑>도 있어 금수면 무학리 334-2번지에 전한다.

50) 金福漢 찬, <文忠公陶隱先生神道碑銘并序>, 성주군 수륜면 신평리 158-1번지.

51) 宋秉璫 찬, <高麗開城判尹朴先生遺墟碑>,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872-1번지.

52) 金槐 찬, <竹栢里朴先生淸風碑>,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1163-30번지.



있다. 이석문(李碩文, 1713-1773)이 북쪽으로 사립문을 문을 내고, 사도세자에 대한 사모의 정과 사직의 안녕을 기원했던 것도 그 핵심은 절의정신이다. 그의 신도비<sup>53)</sup>는 월항면 대산리에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주지역의 실천 지성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 장기석(張基奭, 1860-1911)은 경술국치에 저항하다 대구감옥에서 순절하였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성주의 유림은 1936년에 이동흙(李棟欽)의 글씨로 벽진면 봉계리에 ‘해동청풍(海東淸風)’비를 세웠다. 이에 일제는 항일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1937년 이 비를 부수어 인근 하천에 버렸는데,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이를 수습하여 다시 세웠다. 그 사정을 비음기로 새겼는데, 글은 김창숙(金昌淑)이 짓고 글씨는 김구(金九)가 썼다.<sup>54)</sup> 정재기(鄭在夔, 1857-1919) 역시 절의로 순국한 인물이다. 그는 1919년 조선의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에 서명한 후, 이것이 발각되어 경찰서의 출두 통보가 있자, 이에 항거하며 음독 자진하였다. 정재화(鄭在華)가 지은 그의 묘도비가 수륜면 수성리에 있다.<sup>55)</sup>

일곱째, 전형적인 관리와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지역민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성주는 영남의 대읍으로 여러 목사와 현감들이 정사를 펼쳐왔다. 이들 관리들에 대한 선정비는 도합 40기인데, 모든 것이 사실과 부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선정비 가운데 현감 한덕필(韓德弼, 1696-1771)의 것이 4기, 목사 구옹(具膺)의 것이 3기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덕필은 1738년(영조 14)에 성주에 부임하여 가뭄으로 고통받던 백성을 구제하였다. 이에 성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은 선정비를 각 방(坊) 별로 세워 당초 40여기가 존재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성주에서 정사를 베푸지는 않았지만 활불(活佛)로 칭송되던 감찰(監察) 도갑모(都甲模, 1864-1937)나 치수 사업에 힘쓴 참사(參事) 도준모(都峻模, 1880-1950) 역

53) 郭鍾錫 찬,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訓練院主簿逋齋李公神道碑>,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299번지.

54)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 제82호로 지정(1990년 8월 7일)되어 있다.

55) 鄭在華 찬, <省齋先生西原鄭公墓道碑>,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853번지.



시 성주인들의 칭송 대상이었다. 이들이 가난하고 외로운 군민을 적극 구휼하였기 때문이다.

성주 금석문에는 여성 공덕자도 적극 입전되어 있다. 염농산(廉隴山, 1889-1946)은 그 대표적이다. 그녀는 기생으로 당시 앵무라 일컬어졌는데, 평소 같은 후배 기생들에게 “기생은 돈 많은 사람만을 섬겨서는 안 되며,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바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생의 지조를 강조했다고 한다. 19살 때인 1907년에는 서상돈이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서서 참여하였으며, 이때 네 번째로 기금을 많이 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비로 제언 복구사업을 추진한 공으로 용암면 용정리에 제언공덕비(堤堰功德碑)가 건립되기도 했다.<sup>56)</sup> 성주 금석문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여덟째, 명인들의 한시를 새겨 경관의 품격을 높이기도 하고, 금석문의 형태를 다채롭게 하여 미적 감각을 살리기도 했다는 점이다. 성주는 금석문으로 다양한 작품을 전했다. ‘산화(山花)’선생 이견간(李堅幹, ?-1330)의 작품은 초전면 월곡리의 신도비에 새겼다.<sup>57)</sup> 그는 “창 밖에 두견새 소리 밤새워 들리나니(隔窓杜宇終宵聽), 산에 핀 진달래꽃 몇 겹 속에서 울고 있나(啼在山花第幾層)”라는 시를 지어 중국에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효기우음(曉起偶吟)>과 <회연우음(檜淵偶吟)>을 지은 정구의 시는 그 후인들에 의해 수륜면 수성리 소재의 한강대와 신정리 소재의 봉비암에 새겨졌으며, 은수(隱叟)라는 호를 가진 이의 한시는 가천면 용사리에 암각자<sup>58)</sup>로 새겨졌다. 이로써 자연 경관은 추모정신과 함께 높은 품격을 지닐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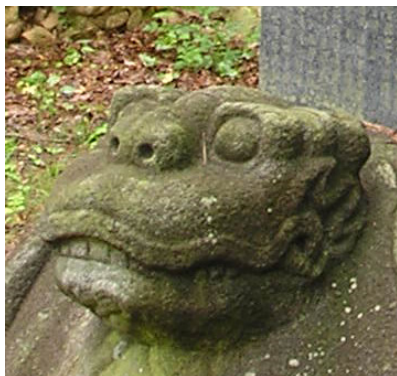
성주의 금석문 제작은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다채로운 미감을 살렸기 때문이다. 주로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통해 이것이 나타났다. 예컨대 정구(鄭逵, 1543-1620)의 신도비처럼 용으로 표현된 것도 있지만, 서학(徐鶴, 1566-1646) 유희비<sup>59)</sup>처럼 대부분의 거북의 모습을 하고 있다.

56) 찬자 미상, <廉隴山堤堰功德碑>,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292-8번지.

57) 李埰鎭 찬, <文安公山花李先生神道碑>,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599번지.

58)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623-1번지에 있다.





[사진2] 정구 신도비의 귀부



[사진3] 남양홍씨 세계비의 귀부

여기서 더욱 나아가 전남면 문방리의 남양홍씨 세계비처럼 거의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한 것도 있다. 성주인의 해학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수과 두전의 형태도 매우 다채롭다. 이수가 없는 것도 많지만, 이수를 아예 두전으로 대체한 것도 있다. 전남면 도흥리의 경주최씨 세덕비가 그것이다. 이 비는 두전을 이수 부분에 새겨, “나려선삼조최씨지명(羅麗鮮參朝崔氏之銘)”이라 하였다. “나려선(羅麗鮮)”은 뒷면에, “삼조최씨지명(參朝崔氏之銘)”은 앞쪽에 두 줄로 새겼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이 역시 성주의 금석 예술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아홉째, 성주 지역은 효열비가 주제면에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성주의 금석문은 주제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 61건의 암각자, 54건의 유허비가 있고, 수적인 측면에서 다음으로 많은 것은 42건의 효열비이다. 이것은 성주 지역에서 효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1937년에 간행한 『성산지』의 범례에서, “충훈효열(忠勳孝烈)은 정려(旌閭)로 표창되어 민을 만한 자취가 있는 자를 입록(入錄)할 것”이라 하여 충훈과 함께 효열을 특별히 강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효열비에 나타나

59) 洪直弼 찬, <皇明充東征遊擊把總徐公遺墟碑>,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1258번지.



는 허구적 기술은 효열 담론이 당대 사회의 현실적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선남면에 소재하는 박구(朴矩)의 효열비에서 “공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겨울에 강의 물고기를 잡숫고 싶어 하자 물고기가 문득 휴연(鵞淵)에서 뛰어나왔고, 싱싱한 복숭아를 생각하자 복숭아 역시 집의 후원에 열렸다.”<sup>60)</sup> 라고 하는 등의 허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효행담은 현실 가능한 측면에서 벽진면 도석휴, 초전면 송희규의 경우와 같이 상분(嘗糞) 및 단지(斷指) 설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측면에서 꿩(용암면 박해중, 수륜면 김호학의 경우), 은어(수륜면 김학종의 경우), 메기(수륜면 이성희 부부의 경우), 비둘기(금수면 김윤도의 경우), 호랑이(월항면 노경택, 초전면 이춘맹의 경우)가 나타나 감천(感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열제, 성주 금석문에는 동류의식 역시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초전면 칠선리에 건립된 보인계(輔仁契)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아예 “이문회우(以文會友), 이우보인(以友輔仁)”이라는 『논어』의 글귀를 돌에 새겨 서로의 우정을 다졌다. 벽진면 자산리에는 정병문(鄭炳文) 등 네 처사의 우정을 사로비(四老碑)<sup>61)</sup>에 새겼고, 가천면 용사리에는 여해규(呂海奎) 등 삼우(三友)의 우정을 암각자<sup>62)</sup>로 새겼으며, 금수면 봉두리에는 이지수(李之壽) 등 세 벗의 우정을 바위에 새겼다.<sup>63)</sup> 그리고 수륜면 백운리에는 역락대(亦樂臺)를 만들어 박요선(朴堯善) 등 7인을 새겨 변치 않는 우정을 과시하였다.<sup>64)</sup>

60) 宋履錫 찬, <孝子嘉靖摠制朴矩之閭>, 성주읍 선남면 도성리 산 82번지, “世傳, 公有母夫人疾, 冬月, 思江魚, 魚忽躍出於鵞淵, 思生桃, 桃亦顆于家之後園.”

61) 都殷煥 찬, <處士鄭紫隱曹修菴韓訥軒許韶堂四老碑>,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669-3번지.

62) 각자 미상, <龍珠山 三友 呂海奎 朴海彬 金乾熙>,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산 91-3번지.

63) 각자 미상, <三老洞 樵翁 李之壽 龔叟 李瑾 素翁 呂宜周>,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산112번지.

64) 역락대는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903번지에 소재하며, ‘역락’은 『논어』의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에서 따왔다. 7인의 벗은 朴堯善, 陳中錫, 陳鳳禹, 趙琥濟, 李建鎬, 姜大建, 陳鳳成이다.



가천면 법전리의 ‘구로동(九老洞)’은 새로운 산수문화로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원조는 포천구곡(布川九曲)에서 제3곡을 <구로동>으로 설정하고, “삼곡이라 감도는 물굽이의 가석선(架石船), 시냇가 고목들은 늙어간 세월을 알 수가 없네. 당시의 아홉 노인, 그 이름 아직 남아 있어, 선배들 멋진 풍류를 후배가 사랑하네.”<sup>65)</sup>라고 하였다. 구로는 담옹(澹翁) 정동우(鄭東羽), 척약재(惕若齋) 정동침(鄭東璫), 지애(芝厓) 정위(鄭煒), 평와(平窩) 정후(鄭煥), 지암(遲菴) 이동항(李東沆), 만각재(晩覺齋) 이동급(李東汲), 벽재(璧齋) 이규운(李奎運), 가곡(可谷) 장경목(張敬穆), 병대(瓶臺) 노공(盧公) 등 9인을 말한다. 이들은 백거이(白居易)의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를 본 따 가천 일대에서 우정을 다졌는데, 후인의 시에 등장하여 중요한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주 금석문의 성격과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조의 위업을 과시하며 그의 사적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 것이 많지만, 이 역시 성주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한다는 소통론적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하겠는데, 산수와 인간이 등치의 관계를 이루며 이들의 자긍심을 적극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강한 우정을 느끼며 바위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사림들의 정신을 빗돌에 새겨 성주 지성사의 흐름을 자랑하기도 했다. 특히 효열이나 불망의 공덕에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는 측면도 주목할 사항이다. 성주 문화사는 이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온전하게 구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5) 李源祚, <布川九曲次武夷權歌>, 『凝窩集』 卷2, “三曲淳匯架石船, 溪邊老木不知年. 當時九老題名在, 前輩風流後輩憐.”



#### IV. 맺음말: 활용과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성주 금석문의 존재 양상, 성격과 가치 등을 두루 검토해 보았다. 금석문은 기본적으로 후세에 영원히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립 주체의 강렬한 희망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희망에는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조선(祖先)에 대한 추모와 연원, 세거의 경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주인들이 성주 산하에서 세거하면서 가꾸어왔던 지역의 문화 역량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역량 안에 강한 자부심이 작동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성주의 금석문은 정치 행정의 심장부인 성주읍을 중심으로 성주의 명인들이 주축이 되어 입비에 대한 일을 담당해 왔다. 성주가 깊은 유풍과 풍부한 문헌을 지닌 고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성주 금석문에는 지역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상호 소통했던 흔적이 다수 발견된다. 성주 사람들의 인문 정신이 성주 산하라는 자연 경관을 통해 발현되고, 성주 산하는 성주 문화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금석문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때로는 우정을 지키며 때로는 절의정신을 드높이며 지역에서 스스로의 소임을 다하였다. 그렇다면 성주의 금석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전망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해 보자.

첫째, 학문적 측면에 대해서다. 무엇보다 앞에서 열 가지로 제시한 성주 금석문의 성격과 가치를 하나의 새로운 주제로 설정해서 이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주 지역 사람들의 입동 및 세거 과정, 이에 따른 숭조의식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 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성주에는 수많은 마을이 존재하는 바, 여기에는 성주를 관향으로 한 자생적인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 외래적인 것도 있다. 외래적인 것은 가까이로는 국내, 멀리로는 중국에서 유래된 경우도 있다. 이 밖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



하게 따져 금석문에 기반한 성주문화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석문학이 정립되어 금석문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주 금석문의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가공한 빗돌과 자연석의 상호 교섭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연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석의 표면을 깎아 글을 새기기도 하고, 자연석을 유지한 채 그 돌을 세워서 비석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기 때문이다. 벽진면 자산리의 이순(李舜) 유지비(遺址碑)처럼 자연석이 거의 가공한 비석 형태로 발견되기도 한다. 가공하여 비를 세우는 경우, 좌대와 비개석을 통해 매우 다양한 미적 형상을 포착할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미술사학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금석문은 학제적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신도비를 중심으로 많이 등장하는 두전(頭篆)은 문자학적 측면에서 제대로 이해되어야 하고, 귀부나 이수를 통해서는 미술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금석문에 담겨있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은 문학이나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들이고, 그 비석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과 입전 인물 및 그 후손의 계보는 민속학이나 역사학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성주 금석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측면의 과제들은 이 지역의 문화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다. 금석문을 통해 길이 남기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기에는 교육적 함의가 뚜렷하게 존재하기 마련이다. 개인의 수양론적 측면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다. 디딤돌에 ‘만석(萬石, 월향면 대산리)’ 혹은 ‘족천(足踐, 용암면 사곡리)’을 새겨놓고 마루를 오르내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금수면 영천리의 ‘세심탄(洗心灘)’, 금수면 봉두리의 ‘세진암(洗塵巖)’, 벽진면 봉학리의 ‘세진(洗塵)’ 등 허다한 암각자에서는 지역 사람들의 알인욕(遏人慾) 존천리(存天理)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암각자는 암각시 등과 함께 자연에 대한 수양론적 독해를 가능



게 한다. 이는 결국 당대인의 수양을 자신의 문제로 환치시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금석문이 지닌 최고의 효과는 효문화(孝文化)에 대한 보급이다. 선조에 대한 추모와 이러한 정신의 후대적 계승을 염두에 두고 비가 건립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금석문은 바로 효문화와 직결되어 있다. 금수면 광산리의 김윤도(金潤道) 정려비, 수륜면 송계리의 김학중(金學宗) 표려비 등 효열비가 수적인 측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타의 금석문 역시 선조에 대한 숭모의식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금석문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 해체 등 일련의 사태를 새로운 차원에서 성찰하게 한다.

성주 금석문의 경우 우도(友道)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하고 있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금수면 무학리의 암각자에 강사 전종권(全鍾權)을 중심으로 한 강생 33인에 대한 기록도 기실 학반(學伴)과 함께 하는 우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아울러 그들 상호간의 우정을 돌에 새겨 영원하고자 하였다. 우도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초전면 칠선리의 보인계(輔仁契)비, 벽진면 자산리의 사로비(四老碑), 가천면 용사리의 삼우(三友), 수륜면 백운리의 역락대(亦樂臺), 가천면 법전리의 ‘구로동(九老洞)’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금석 같은 우정을 자연과 함께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우도와 대비하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관광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문화가 산업인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주 금석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은 성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더욱 나아가 대중화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금석문 스토리를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모든 금석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금석문은 대체로 이야기를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주제에 따른 금석문 지도를 만들고, 여기에 입각하여 답사 루트를 개발하여 구체적인 문화관



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은 성주문화사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주 금석문에 대한 개별 스토리텔링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도 있다. 그 하나가 현감 한덕필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역을 달리하지만 그의 비는 도합 40기였다고 하는데, 현재 성주군 안에는 4기가 존재한다. 이는 그의 애민정신이 성주의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① 한덕필이 성주에 부임하였을 때 가뭄이 극심하였다. ②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③ 이에 한덕필은 장작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올라 앉아 불을 지피게 하였다. ④ 불이 타올라 뜨거워지자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 장작불이 꺼졌을 뿐만 아니라 성주의 가뭄도 해결되었다. ⑤ 성주의 백성들은 한덕필의 덕을 기려 곳곳에 선정비를 세웠다. 이 이야기는 관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사를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절의정신 또한 성주정신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다. 벽진면 봉계리에 있는 장기석과 그의 부인 함양 박씨에 얹힌 금석문 이야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된다.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제에 저항하며 장기석이 옥중에서 순절하였다. ② 장기석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성주의 유림이 ‘해동청풍비’를 건립하였다. ③ 일제가 이 비석을 부수고자 했다. ④ 장기석의 부인 함양 박씨가 남편의 비를 지키기 위하여 비 곁에서 자결하였다. ⑤ 일제는 비석을 여러 조각으로 파괴하여 하천에 버렸다. ⑥ 해방 후 지역 유림이 조각난 비석을 수습하여 다시 세웠다. ⑦ 해동청풍비 옆에 부인의 기열비도 세웠다. 이 같은 절의와 관련된 스토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특정 지역의 문화나 특정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헌을 주된 텍스트로 활용한다. 이것이 일차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텍스트를 문헌으로 한정하는 것은 연구 자료를 지극히 제한하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며, 금석문 등 새로운



자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 금석문은 문헌과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측면에서 진실을 밝힌다. 또한 암각자 등은 문헌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금석문 연구에 대한 당위성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한 연구의 방법론을 새롭게 고민해 볼 일이다.

기실 금석문은 자가문의 과시와 함께 조상의 공덕을 과장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두찬(杜撰)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를 통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석문은 훨씬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인식하면서 성주의 금석문을 새롭게 발굴하고, 여기서 더욱 나아가 문헌과 금석문을 비교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주 금석문은 학문적,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깊이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본고가 성주 금석문 이해를 위한 하나의 출발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權 輶, 『石洲集』

李舜欽·裴定坤, 『星山誌』, 1937년 간.

李源祚, 『凝窩集』

張以俞, 『知分軒集』

崔 恒, 『太虛亭集』

『世祖實錄』

刻 者 미상, <三老洞 樵翁 李之壽 龔叟 李瑾 素翁 呂宜周>,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산112번지.

刻 者 미상, <亦樂臺>,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903번지.

刻 者 미상, <龍珠山 三友 呂海奎 朴海彬 金乾熙>,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산 91-3번지.

郭鍾錫 찬,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訓練院主簿遯齋 李公神道碑銘并序>,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299번지.

金 梲 찬, <德泉書院遺墟壇碑>,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198번지.

金 梲 찬, <竹栢里朴先生淸風碑>,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1163-30번지.

金福漢 찬, <文忠公陶隱李先生神道碑銘>,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158-1번지.

都殷煥 찬, <李東淑妻金氏表孝碑>,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756번지.

都殷煥 찬, <處士鄭紫隱曹修菴韓訥軒許韶堂四老碑>,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669-3번지.

李敎寅 찬, <隴西郡公李先生遺墟碑>, 성주읍 경산리 107-2번지.

李國源 찬, <高麗嘉靖大夫京畿監司治城宋公墓道碑>,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산 53 -15번지.

李圭衡 찬, <通政大夫龍驤衛副護軍老巖李公遺址碑>,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산 154번지.

李驥相 찬, <星山伯李公能一遺墟碑>, 성주읍 경산리 329번지.

李魯轍 찬, <贈戶曹參議行顯陵參奉進士泉谷淸州李公諱崇倫遺墟碑>,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0-11번지.



李種杞 찬, <大明忠臣朝鮮義士贈通訓大夫星州牧使星山李公神道碑銘>, 용암면 대봉리 602-3번지.

李塚鎭 찬, <文安公山花李先生神道碑>,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599번지.

李塚鎭 찬, <興安府院君裴公仁慶神道碑>,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91-1번지.

李恒老 찬, <高麗三重大匡開國元勳碧珍將軍李愆言事蹟碑>,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765-1번지.

書者 미상, <議政府領議政忠獻金公昌集受命遺墟碑>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31번지.

宋履錫 찬, <孝子嘉靖摠制朴矩之閭>, 성주읍 선남면 도성리 산 82번지.

宋秉璿 찬, <高麗開城判尹朴先生遺墟碑>,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872-1번지.

宋在晟 찬, <誠菴潘南朴公孝行碑>, 성주군 대가면 홍산리 673번지.

宋鴻訥 찬, <洛隱處士石公遺墟碑>,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749-4번지.

申 欽 찬,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諡文穆公寒岡鄭先生 神道碑銘並序>,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6-1번지.

儒稷諸生 찬, <故判書凝窩李先生興學倡善碑>,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70번지.

李明翔 찬, <貞節公書錦堂裴先生神道碑銘>, 성주군 성주읍 대항리 1810-1번지.

李文樾 찬, <南宮公 善政碑>,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98-3번지.

李源祐 찬, <南陽洪氏世系碑>,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산89번지.

全鍾權 찬, <孝婦金海金氏碑>도 있어 금수면 무학리 334-2번지.

鄭在華 찬, <省齋先生西原鄭公墓道碑>,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853번지.

撰者 미상, <牧使尹侯滋一淸德善政碑>,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98-3번지.

撰者 미상, <牧使洪侯秉僖衛道興學碑>, 성주읍 예산리 198-3번지.

撰者 미상, <廉隴山堤堰功德碑>,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292-8번지.

撰者 미상, <學生裴公義九不忘碑>,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 328번지.

崔榮煥 찬, <羅麗鮮參朝崔氏之銘>,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1612번지.

洪 暹 찬, <有明朝鮮國通政大夫江原道觀察使權公神道碑銘并序>,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산41번지.

洪直弼 찬, <隴西郡公李先生神道碑>,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산96번지.

洪直弼 찬, <皇明充東征遊擊把摠徐公遺墟碑>,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1258번지.

박영호, 『성주의 비석 조사』, 성주군, 2006.



- 이세동, 「星州의 儒學과 兩岡」, 『영남학』 28,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5.
- 이용엽, 「金石文의 墓碑에 대한 考察」, 『전라금석문연구』 20, 전라금석문연구회, 2013.
- 정우락,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영남학』 2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
- 황위주, 「星州 漢文學의 歷史的 展開樣相」, 『영남학』 2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Abstract

## The Existence Patterns and Nature of Epigraphs in the Seongju Area

Jeong, Woo-ra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ocal culture of Seongju based on the epigraphs around the area. The space scope of the study covered ten eups and myeons contained with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district of Seongju in April, 2018. The time scope included figures and events in the area before 1945. Epigraphs would be categorized into Sindobi, Myodobi, Hyoeolbi, Yuheobi, Seonjeongbi, Sajeokbi, Amgakja and Amgaksi with Myogal omitted.

In Seongju, epigraphs were made around Seongju-eup, which was the center of it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mainly after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Of epigraphs in Seongju, Amgakja recorded the widest distribution. Many of its epigraphs were made by local figures to commemorate their achievements or honor their ancestors. Most of the writers and calligraphers were also local figures. These facts were manifested in epigraphs of various forms and made local residents take huge pride as the people of Seongju.

The epigraphs of Seongju reflected a relational world view, which signifies communication between nature and man. Landscape and man had equal value, which was depicted by their efforts to express their pride actively. In the process, they would feel strong friendship and



engrave their names in rocks or carve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s in a monumental stone, thus enhancing the flow of intelligence history in Seongju. It is especially noteworthy that women made often appearances in the deeds of filial duty and continuing remembrance.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ultural history of Seongju is one of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ulture.

**Keywords**

Seongju area, epigraph, pattern of existence, nature, Seongju's culture, Amgakja, pride, communicate theory, history of intelligence



